

國會改憲特委構成與運營日誌

國會改憲特委構成 및 運營 日誌

改憲特委構成要求

- 85年5月 第12代國會開院國會의 代表演說에서 李敏雨總裁가 國會憲法特委의 構成을 要求코 同 5月31日 新民黨議員 全員의 名義로 改憲特委構成決議案을 國會에 提出

憲 特 波 動

- 同年 定期國會에 들어와 우리黨과 국민당도 각기 憲法特委 構成案을 提出
 - 11.13-28 사이 運營委 審議를 거쳐
 - 3黨 代表間에 “國會憲法特委” 構成에 合意했으나
 - 12.2 新民黨議員總會에서 東橋洞系가 名稱問題와 관련하여 憲特構成을 反對, 代表合意를 파기
- 新民黨이 이 憲特問題를 豫算案處理와 연계
 - 豫算案處理 파동 (實은 憲特波動)을 惹起
 - 議員 및 補佐官 暴力事態까지 恣行

場外鬭爭展開

- 85年 定期國會 波動後 新民黨은 86年1月16日 擴大幹部會議에서 場外鬭爭을 決定
 - 改憲推進本部 11個市·道支部長 인선과 함께
 - 改憲推進 1,000萬人 署名運動을 展開 (2.12)

國會改憲特委構成

- 86.4.30 青瓦臺 3黨代表 午餐會同에서 全斗煥大統領閣下께서
 - 「 89年 改憲所信은 不變이나 與·野가 合意를 해 오면 在任中 改憲도 反對하지 않겠다」는 趣旨의 뜻을 表明
 - 大妥協의 劃期的인 轉機를 마련
- 同 5.29 盧泰愚代表委員 - 李敏雨總裁會同
 - 國會憲法特委構成原則에 合意
- 第130回 臨時國會 (6.5-6.24)에서
 - 憲法改正特委構成決議 (6.24)

特委出帆陣痛

- 特委構成에 對해 東橋洞側은 當初부터 否定的 立場
 - ※ 李重載副總裁 : “ 憲特에서 改憲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. 8.15까지는 사면복권 되어야 한다 ” 고 言動

- 新民黨은 東橋洞系의 반발과 人選陣痛으로 委員名單 提出
지연
 - 人選싸고 東橋洞系는 獻金說, 上道洞系는 競爭 議員끼리
 먹살잡이까지 연출
- 特委構成決議後 40餘日이 經過한 後에야 憲特發足
 - 7.30 1次會議開催코
 - 委員長과 幹事選任

特 委 活 動

- 8.1 第2次會議 開催
 - 憲特運營方向 協議
 - 3個小委 構成 合意
- 8.8 第3次會議 開催
 - 特委運營問題 討論에서 新民黨은
 - 小委員長의 할애
 - 12日부터 地域公聽會 要求
 - 拘束者釋放 및 사면복권촉구결의안 採擇등을 要求
 - 結論없이 散會
- 8.11 第4次會議 開催
 - 幹事會議에서 議事日程 異見으로 流會

- { 民正 : 3 個小委부터 構成
- { 新民 : 公聽會부터 實施 (金守漢 : 上道洞)
- 사면복권부터 審議 (李重載 : 東橋洞)

△ 8.12 幹事會議 : 運營 7 個項 合意

- 1) 公聽會는 서울등 7 大都市에서 開催
- 2) T V 放映위해 중계를 要請
- 3) 公聽會 開催日까지 小委名單提出
- 4) 公聽會後 小委가동
- 5) 3 個 小委員長은 民正黨으로 選任
- 6) 赦免復權問題 - 議案으로 成立
- 7) 國務總理등의 出席 (時期는 幹事會議서 결정)

△ 8.16 幹事 會議

- 公聽會日程合意 (8.28-9.10)
- 8.25 第 5 次 會議開催
 - 3 黨改憲試案 提案說明
- 8.26 第 6 次 會議開催
 - 豫定했던 質疑·答辯 못하고 散會
- ※ 公聽會의 場所·中繼方法등 與·野異見
 (公聽會準備 時限축박으로 순연 불가피)

△ 8.28 幹事會議

- 公聽會 問題 論議

- { 우리黨 : 發言時間調整, 公正報道 保障
- { 新民黨 : 生中繼 고집

- ※ {
 - 8.28 東橋洞系 모임에서 生中繼고수방침 결정
 - 8.30 釜山大會서 金大中은 錄音演說을 통해 "憲特으
로 改憲問題는 못푼다"고 主張

△ 9.3 幹事會議

- 憲特正常化 合意
- 5日 全體會議開催코 質疑·答辯 하기로

- ※ 9.4 新民黨 憲特委員會議에서 9.3 幹事會議 合意事項을
拒否하여 5日會議는 무산됨.

△ 9.11 幹事會議

- 우리黨이 與·野 公述人 6名의 公述內容을 1人當 10分
間씩 放映하되 公述人이 要求하는 部分은 모두 放映키로
提議

- ※ 12日 新民黨 擴大幹部會議에서 拒否

新民黨, 憲特中斷宣言

○ 9.29 3者會同(李敏雨, 金泳三, 金大中)

- 與·野 實勢對話가 이루어 질때까지 憲特中斷宣言
(在野와 東橋洞系의 壓力)

<反應>

- 金泳三 : " 지금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" 고 굳은 表情
- 金守漢 : " 憲特은 우리의 눈물과 싸움의 결집체인데 憲特을 차버리고 어떻게 改憲하는가 "
- 金在光 : " 憲特이 잘 되기를 期待하면서 黨運營에 협조해 왔는데 不參宣言은 승복할 수 없다. "
- 辛道煥 : " 政務會議決定을 두 金씨가 마음대로 번복해도 되는가 "

※ 이후 李敏雨 · 金泳三 · 金大中은

- 選擇的 國民投票, 실세대화, 거국내각등을 要求하고 憲特은 외면, 일체의 對話에 不應

마 지 막 합 의 번 복

o 87.2.18 3 黨代表會同

- 臨時國會 召集과 憲特의 正常化 原則에 合意

※ 2.9 總務會談에서 憲特問題論議 拒否로 다시 原點으로 後退